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naum

법공양 페이지

지극히 관하면 악한 마음도 녹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문 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다니는 학생인데요, 공부를 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신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노력만큼 성적도 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나무는 흙에 가려져 자기 뿌리를 못 보지? 그렇다고 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다만 흙에 가려져 뿌리를 보지 못할 뿐이야. 그렇듯이 사람도 욕망으로 볼 수 없는 자기의 영혼의 근본 뿌리가 있어. 그 뿌리를 주인공(主人)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주인공이 너의 마음을 모두 이끌어 줄 수가 있단다. 네 몸속에 많은 생명들이 있고, 많은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식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깐 그 마음에서 의식들이 나오는 것을 그 네 뿌리가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주인공,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공부 잘하게 할 수 있고, 너의 심부름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하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거거다가 말고 진짜로 그렇게 믿어. 주인공은 너의 영원한 친구야. 그러니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따지지 말고 진실하게 너의 뿌리를 믿고, 모든 것을 그 친구에게 일임하는 거야. 너와 네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까 너는 다만 열심히 심부름을 할 뿐이야! 마치 나무 이파리가 뿌리로부터 영양분 공급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하지 않고 다만 태양을 향해 열심히 손을 뻗듯이 말이야. 꼭 그렇게 해요.

진정한 참회가 안 됩니다

문 안녕하십니까? 문득 생각나 인사 올립니다. 빈 항아리처럼 깊어진 10월의 하늘을 무심히 쳐다보니 아파하는 얼굴들이 하늘 저편에 숨어 있다가 불쑥 불쑥 달려나와 겨울도 오기 전에 이 가슴 떨게 합니다. 참회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이 왜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위선이 되고 과시가 되어 이기에 물고 육체에 빠져들어 거짓 참회가 되어 버리고 거짓 기도가 되어 버리는지... 참회하면서 진정한 참회를 하지 못하는 왜일까요? 너무나 짙어버린 죄의 습성 때문입니까? 아니면 순간 만끽하는 죄의 마음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인지요?

답 여러분이 업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업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없어지지 않고 소멸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생각을 그냥 하고 사느냐 한생각을 하고 사느냐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몸에서 모든 생명들이 다 더불어 같이 해주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면 한생각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 과거로부터 그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숨이 많아진 그 자체를 어떻게 단번에 소멸을 시킵니까. 참회만 한다 하면 그 다음에, 참회한 것이 또 없어지고 또 다른 것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는 데요. 그러기 때문에 내 이 몸은 시지일 뿐이고, 심부름꾼일 뿐이야. 그러니 나의 원동력인 근본 나를 움직여지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거거다가 모든 것을 맡겨라 하는 겁니다.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거다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웬 줄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습관과 업장이 너무 진하게 있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걸 관하고 놓는다면 그것은 소멸이

교라는 것을 조금 맛보고 나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놓지 않고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금 해하고 긴장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게 불교를 알게 해주셨던 그 형이 지나가는 말로 '이 뭇고만 꾸준히 해 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다름아닌 화두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 생각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 뭇고'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멋대로 공부를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 공부를 심었다니 공은 화해서 없 어지고 공작으로 화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모두들 과거의 공씨를 자기 안에 놔두고 꼭 다른 데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공씨가 짝이 돼 버렸는데 어디 가서 공씨를 찾느냐구요. 짝에서 공이 또 달리는 법인데 어디서 공을 찾아요? 그거는 백년이 가도 못찾아요. 자기가 싸스로 돼 있고 그 공이 화해 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공씨가 화한 것을 알고 무조건 그냥 공씨를 틀어박히 먹어치워라 이 소리예요. 자기한테 불



그림 · 최주현

믿고 놓을때 구정물도 맑은물로 바뀌죠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멸이 안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한생각을 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라고 할 것도 없구요.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보현이고 그대로 부처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직여 봤다 하면은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생에 빨리 깨우쳐서 다 소멸시키자는 뜻에서 저저는 그 마음에다 모든 걸 놓으라고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화두는 어떻게 드는 건지요

문 귀의 삼보하옵고, 저는 올해 스물 다섯된 대학생입니다. 몇 해전에 잘 아는 형을 통해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알게 된 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를 써 왔습니다. 불

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수박을 들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하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가 자기 굴은 세월이 다 갔다는 얘기도요. 나는 굴이 지 말고 못났든 잘났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 그렇게 겁이 나서 못잡라 먹어보느냐는 겁니다. 그냥 먹어치워라 이겁니다. 그냥! 먹어보면은 그 속에 씨도 있는 걸 알게 되고, 수박 속 맛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고 그럴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맛을 보고, 그 씨가 있어서 내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종자로 인해서 수만 수천이 벌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죠? 하고 걸로 백네날을 가지고 굴려도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대로 화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

나서 응! 하면 벌써 이것이 화두라. 그래서 화두를 어느 큰스님께서 주신다 해도 그것을 이념으로 받기 말고 마음으로 받아라. 이념으로 받는데만 만날 들고 돌아다녀야 하고 마음으로 받는데만 그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내면처와 또 화두를 주신 분의 내면처가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둘을 한데 합쳐도 그냥 하나의 주인공이요, 만물을 갖다가 하나로 넣어도 그것은 일탈일 뿐이라는 얘깁니다.

불교를 왜 믿어야 합니까

문 기독교인들은 천당을 가기 위하여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천당은 불교의 삼천대천세계중에 어느 급에 속하는 겁니까? 또 불교를 왜 믿어야 하는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종교 중에 왜 불교를 믿어야 하며, 불교를 믿는 목표를 사후세계에 두어야 하는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잠을 자줄 수도 없고,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통뉘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승님의 모습을 볼 때 세가지를 보라 했습니다. 뜻과 말과 행, 그 세 가지를 봐서,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했지 믿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참자가 있는 것도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요. 수약검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화를 시켜서 형성시켜서 점차 난자를 밟아서 이 인생이 태어난 겁니다. 자기 영혼과 더불어 점차 난자가 없다면은 태어날 수가 없죠. 자기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자기를 그렇게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형성시켜 온 겁니다. 자기 근본은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외국에 가서 봐도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있어요. 전부 타의에서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죠. 불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는 얘기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 먼저 발견하라고 했고, 밝힌 그릇을 가지면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그 밝힌 그릇은 되느냐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빵 하나로 다 먹이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을 모른다면 계란에 눈이 없는 것과 같아서 병아리를 부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나리 같느니라. 각자 나를 믿어야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지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살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탄생!

피라밋 이글루형 황토방 규격
표준형 : 49m²

-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황토방
- 황토방을 순수 황토만을 사용한 이글루형으로 시공함으로써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내부공간
- 전통방식의 구들시공으로 황토의 장점을 최대화
- 정신 및 신체건강을 위한 최적의 황토방
* 황토주택시공 및 황토 흙벽돌 판매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성우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530-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최고의 명차! 최고 명품의 다관!

스님의 사찰에서 직접 만나 보실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주시면 언제든 찾아보겠습니다.)

-보이차, 철관음
-오룡차(우롱차)외
-다관(명품 다량 보유)

차의 이름은 같아도 맛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스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후 선택하십시오.

삼방무역 TEL: (02) 3401-9307
H. P: 011-474-1345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 탐영제 방생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물탕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 433-2900, 0303
(0655) 432-0652, 0072